

말 그대로 자조금이라 함은 특정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을 펼치기 어려운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해 누구의 구매 없이 스스로가 조성하는 기금이지만, 낙농가 참여율 100%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더욱 큰 믿음과 신뢰가 생길 것이며, 우리 낙농가들을 보는 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식만이 다르다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많은 홍보 활동들이 좀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일부 소비자들은 낙농의 현재의 모습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우유소비를 위한 홍보가 옛날보다 눈에 많이 보이는구나 정도로 생각되고 있을 뿐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같은 인터넷 세상에 낙농자조금의 내용이나 우유 소비 추진을 위한 홍보가 웹상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우리 낙농가와 축산에 관련된 사람들이겠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낙농자조금 사업이야말로 NGO(비정부단체) 활동이라 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지만, 정부로부터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리라 본다. 물론 일부 정부보조금이 있지만 이런 재정적인 도움 뿐만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여러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결론

처음 시작은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돌출시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부각보다는 현재 우리 낙농가 스스로의 자금을 통한 활동으로 우유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우유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 낙농자조금사업 첫해로써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진다.

이러한 낙농자조금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올해 보았던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낙농산업의 기틀과 외적으로는 단합된 힘을 보일 수 있어 낙농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된다. ☺

〈필자연락처 : 0446-881-7631〉

우리낙농인들이 자조금사업의 장을 활짝 열었다



주 우 식

낙농자조금운영위원(충남)

어떻게 하면 낙농인들이 맘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자조금 25억을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자조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명확하고 한 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여 텔레비전, 신문, 잡지, 지하철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다.

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이루어 낸 자조금사업은 낙농인들의 자긍심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낙농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

수년전부터 자조금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은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돈을 건어 우유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외국에서도 일찌기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서 좋은 제도이며 우리도 꼭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은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와 낙농인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내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무렵 우리 낙농인들에게는 상상치도 못한 IMF를 맞게 되었다.

우유 소비는 둔화되고 사료값은 대책없이 오르고 원유는 남아돌아 재고가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돌아 원유 대금을 몇 달치씩 받지 못하는 낙농가가 있는가 하면 송아지가 낳는대로 먹일수가 없어 여의도 고수부지에 과천 청사앞에 축협중앙회 마당에 버려졌는가하면 우유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저능력우 도태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우리 낙농인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며 이쪽에서는 폐업 저쪽은 부도 다른 한쪽은 사

료값 부채에 시달리다 못해 야밤 도주를 했다는 소리가 들릴때 우리 낙농인들은 또 하나의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원유값을 5% 선에서 인하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낙농유우협회에서는 원유값 인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수 차례 대책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한 것이 아주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자조금을 건어 우유를 홍보하여 잘 팔리게 해야 할 것이며 저능력우를 자발적으로 도태하여 원유의 수급을 맞추고 품질 좋은 원유를 생산할테니 원유값 인하하는 것만은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자조금을 실행하고 저능력우를 자발적으로 도태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원유값 인하는 것을 철회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자조금제도 실행에 대한 의견 청취와 심사숙고한 여러차례의 회의 끝에 만장 일치로 결정되었다.

원유 1kg에 5원씩 3개월간 거출하여 우유에 대한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여 자조금 추진위원회를 지역과 유업체별로 선정하여 자조금추진위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협회 임직원들과 추진위원들은 한국 낙농을 자조금으로 살려 내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체

낙농가의 80%의 참여율과 17억여원이라는 자조금을 거출하였으며 정부에서 8억여원을 보조로 지원 받아 25억으로 자조금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벅찬 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낙농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자조금 25억을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까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자조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명확하고 한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고 또 의논하여 LG애드라는 광고 회사에 용역을 주어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도 하고 신문, 잡지, 지하철, 요리강습회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다.

이제는 선도금을 줄테니 우리 회사로 원유를 납유해 주세요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유 장려금은 얼마 주겠다 등등... 유혹의 손길이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가. 원유가 부족한 것은 다른 것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 낙농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IMF 하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철학을 자지고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한 덕이라 생각된다.

우리 낙농인들이 자조금사업의 장을 활짝 열었다. 자조금사업은 꼭 필요하며 몇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우리 낙농육우협회와 자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효과와 한국낙농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 (원유 1kg당 1원씩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낙농인이 20억, 정부에서 10억, 총3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우리 낙농인들은 1회에 한하여 동참하지 말고 연중 지속적으로 동참해 우리 낙농 산업이 농촌의 영원한 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 낙농인들 중 20%의 무임 승차

자가 있었으며 유업체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유값은 인하하지 않고 우유값만 인하했다는 이유로 동참을 하지 않았는데 2000년부터는 유업체도 꼭 동참해야 하며 무임 승차자도 없어야 하겠다. 유업체가 살아야 낙농가가 살고 낙농가가 살아야 유업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낙농인들의 생각이다.

지난해와 같은 IMF여건 속에 우리 낙농가는 절규와 절망이었는데도 많은 유업체는 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경영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끝으로 자조금사업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우리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어 '99년 방송 광고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또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고와 자조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애를 많이 써주신 LG에드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낙농육우협회가 있고 자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 된다면 한국의 낙농산업은 영원히 발전되리라 생각하며 낙농가 각 가정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길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417-564-1549)

남보다 내가 먼저 앞장 선다는 생각으로



박 순 식

낙농자조금운영위원(전북)

낙농자조금 조성과 자조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타 유업체나 이웃 낙농가들의 불참이 없어야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또한 자조금을 내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낙농가는 푹푹 멍쳐서 유업체가 부도로 유대마저도 밀린 상태에서도 자조금 조성에 앞장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낙농자조금이란 낙농 불황타개를 위해 낙농가 스스로 소비촉진 활동에 동참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낙농자조금은 우유의 질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우유가 선진국에 못지 않은 우수한 우유임을 소비자에

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유가 외국제품보다도 오히려 뒤지지 않음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하여 우유소비를 확산시키고, 우